

鉛板을 放射形으로 中心만 남기고 일곱줄로 잘라서 壺를 가운데 놓고  
우그러서 外皮를 삼았는데 그중 一片은 切斷되었다. 瓶內에는 아무  
것도 든 것이 없었다.

## 二、유리製 舍利瓶 一個

翡翠色の 小瓶이었으며라고 생각되나 形態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大破되어 小破片들이 塵埃속에 섞여 있었다. 大體로 밑은 平底이며  
목이 긴 瓶인 듯하다. 塵埃를 精査한 結果 舍利 八顆를 찾을 수 있  
었는데 이 瓶 속에 있었던 것이 散亂된 듯하다.

## 三、유리製 구슬 三十三顆

大小 二種이 있다. 色은 四種이며 가운데 구멍이 있고 실의 一部가  
남아 있어 처음부터 실로 꿰어서 넣었던 모양이다.

## 四、銅製 銅 一個

銅製로서 끝이 切斷되었다. 根部에는 簡單한 裝飾을 添加하였다.

## 五、絹片 若干

紺色과 土色の 二種이지만 原形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남아서 손을  
대기 어려운 程度이다. 現場에서의 所見으로는 밀바닥에 比較的 큰  
破片이 남아 있고 위로 갈수록 朽損이甚하였다. 上記 遺物들은 이 絹  
片 위에 놓여 있었고 유리製舍利瓶의 破片들도 그 위에 散亂되었던  
點으로 보아 原來는 前記 遺物들을 싸던 것으로 짐작되었다.

以上 發見 遺物들을 概觀하였다. 石塔 自體가 小規模이니 舍利孔도  
따라서 적었으며 裝置方式 亦是 매우 疏忽하였다. 뚜껑을 덮지 않아 塵  
埃가 많이 쌓인 原因이 되었고 그 위에 舍利具 周圍에 아무 補強施設이  
없어 破損이甚했던 듯하다. 舍利裝置에 있어 香木을 넣는 일은 通例같  
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痕蹟을 찾을 수 없었다. 그 中에서도  
鉛製壺는 稀例에 屬할 것이며 유리製舍利瓶은 復原後에야 그 全貌를 알  
수 있겠지만 色調와 形態가 아직까지 報告된 數例와 大同小異한 것으로  
推測되어 稀貴한 一例가 되었다. 다만 完形을 保存하지 못하고 破碎散  
亂되었음은 哀惜한 일이었다.

本塔은 이 洞리에 남아 있는 四塔중 가장 年代가 오랜 것으로 充實히

新羅典型石塔의 樣式을 따르고 있으며 나머지 三塔은 모두 高麗時代石  
塔의 特徵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또 本塔의 附近에서는 羅末·麗初에 屬  
하는 瓦當, 磁器片, 靑銅器 등이 發見된 點을 參考하면 本塔이나 舍利  
具의 年代도 그 樣式과 아울러 羅末·麗初에 두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舍利具의 實測은 다음과 같다.

鉛製壺 高 5cm 口徑 1.1cm 底徑 2cm 腹徑 3cm

유리製舍利瓶 底徑 1.6cm

鉛製板 徑·九·五cm

銅製釵 長 八·五cm

追記一、本塔은 解體調査後 原位置에 復原建立하였으며 現地形은 田  
이지만 앞으로 開發할 計劃이라고 함으로 原地面에서 五寸 낮  
추어서 復原하였으며,

一、本塔에서 北方約 一五〇m 地點 발 가운데 高麗時代 三層石塔  
이 遺存한 바 이와 隣接한 北方 民家內에서 今年 四月頃 銅製  
如來立像 一軀가 發見되어 國立博物館에 收藏되었다.

## 高靈 開津面 良田洞 先史遺蹟에 對하여

尹 容 鎮

良田洞은 大邱方面에서 高靈邑에 들어가서는 바로 길목에 位置한다. 俗  
稱 高靈邑 北方을 가로막고 있는 「錦山峠」의 東南쪽이 良田洞이다. 先史  
遺物이 散布되어 있는 곳은 이 錦山峠 頂上에 東南으로 뻗은 嘴狀丘陵  
一帶이다. 洛東江流域의 先史遺蹟 調査의 一環으로 昨年 六月과 九月의  
二次에 걸친 이 踏査結果는 數年 동안의 大邱近郊의 調査에서 전혀 보  
지 못했던 形狀의 石器가 發見되었다. 아직 調査地域을 넓히지 못했던  
것과 文獻의 貧弱으로 이러한 石器들의 文化的 編年的 究明을 선뜻 못  
이루고 있는 實情이 나于 先簡約하게 紹介하여 많은 敎示를 받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遺物은 모두 地上 採集이란 것을 前提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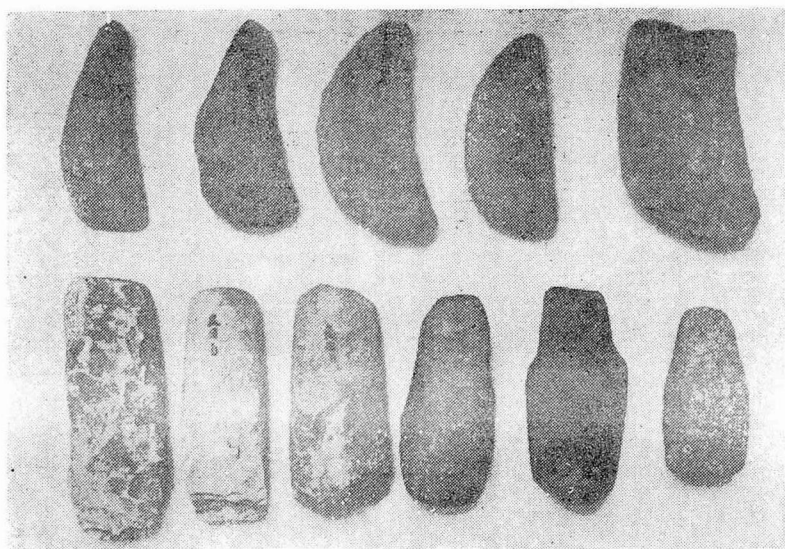
二次에 걸쳐 採集된 石器는 蛤又有肩石斧 三個、牛角形石斧(假稱)

二四個、平扁長方形石斧 五個、橢圓形石槌 三個、長方形片刃石鑿 一個等、그리고 土器類에 있어서는 平底壺類와 高杯壺 等으로 모두 赤褐色及黑色素燒系の 無紋土器이다. 個別的으로 보면.

石器類

(1) 有肩石斧 蛤又有肩石斧는 南滿洲一帶에서 韓半島에 걸쳐 分布하는 것으로서 南滿洲獨特한 것이라 말한 바도 있다. 良田洞에서 三個 採集된外 大邱 山格洞 丘陵에서 또 一個 發見되고 있다.

(2) 牛角形石斧、어느 系統의 石斧인지 지금으로서는 規定짓기 어려워



假稱해두는 바이다. 良田出土石器 가운데 量 質에 있어서 그 性格을 代表할 수 있으리라 본다. 平面이 造生된 모양 길쭉한 半月形 牛角形 等 몇 가지로 分類되나 共通되는 點은 모두 그 平面이 灣曲되어 있고 頭部는 좁고 雙部는 石器從軸에 對해서 直角을 이루지 않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이다. 全面은 細打하여 面을 부드럽게 하였으나 雙部만은 모두 크게 打切하

여 鈍한 雙部를 形成하고 있다. 個中에는 有孔의 痕跡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어 柄을 紐着시켰으리라 본다. 石質은 모두 砂岩質로서 이곳 丘陵에서 採取할 수 있는 것들이다.

(3) 長方形扁平石斧 石材는 粘板岩 또는 礫石를 약간 加工한 것 등으로 斷面은 長方形에다 모를 죽인 꼴을 하고 있으며 平面은 모두 길쭉하면서 윗쪽이 약간 좁아진다. 全面은 亦是 細打하여 面을 곱게 하고 있다. 雙部만은 前記 牛角形石器和 같이 크게 打切하여 雙部가 모두 鈍하다.

(4) 橢圓形石槌 달걀모양을 擴大한 것과 같은 것으로 全面을 細打한 礫質 石器이다.

土器類

(1) 낮은 臺에다 바닥이 平扁한 것과 가운데가 약간 들어간 것 등의 壺類로서 얇은 것과 두터운 것이 있다. 모두 石英粒을 含有시킨 素燒質의 土器이며 個中에는 大邱 山格 等地에서 發見되는 黑色土器類도 있다. 또 이들은 角形把手를 附着시키고 있다.

(2) 高杯類로서 臺가 나팔 모양으로 밑이 벌어진 것이며 形에 있어서 大邱近郊先史遺蹟에서 發見된 것과 같다. 壺類와 같은 質로서 黑色 赤褐色 二種이 있다.

以上 大體 採集 遺物을 列舉하였거니와 이 가운데서 有肩石斧는 東南亞에서 南滿洲에 걸쳐 海岸地帶에 分布한다. 그러나 南쪽의 有肩式은 대개가 平扁石斧인데 對하여 南滿洲것은 蛤又有肩式으로서 良田洞은 이것과 系를 같이 한다. 그러나 牛角形石斧만은 本人의 寡聞대로는 北方의 것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南方에서 약간 出土되는 靴形石斧系의 特徵에다 結付시켜 보고자 하였으나 역시 形態上으로 一致되지 않는다. 如何間 앞으로의 他地域에서의 出土例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土器類에 있어서는 大邱 山格洞、月背上仁洞、枝川深川洞 大邱 砧山 등에서 出土되는 金石併用期 土器類와 形態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土器類와 石器類들이 併行된 것이라는 證據는 없어 時期的으로 同一의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조금더 具體的인 것에 對

한 報告는 뒤에 大邱近郊遺物과 같이 하겠으며 우선 이곳 特異性を 紹介하여 敎示를 받고자 하는 바이다.

## 覺淵寺 石造毘盧舍那佛坐像(覺淵寺調査記上)

鄭 永 鎬

忠北 槐山郡 長延面 臺成里에서 約8km 되는 臺成部落의 寶蓋山麓에 覺淵寺가 있다. 羅代의 名刹로 巨大한 規模였다고 傳하나 現在는 建物로 大雄殿과 毘盧殿 뿐이며 石造遺物은 境內의 毘盧舍那佛을 비롯通一 大師塔碑等 數點이 隣近에 殘存하고 있다. 現住持 李聖出(六三歲)氏 말에 依하면 近年 農耕時에 出土된 龜趺一座와 屋蓋石等으로 보아 아직도 많은 遺物이 埋沒되어 있을 것이라 한다.

### 一、毘盧舍那佛坐像

毘盧殿內 主尊으로 奉安되어 있으며 原位置로 생각되는 바 이 建物の 柱礎石 및 基壇石들은 羅代 本來의 것으로서 佛國寺極樂殿의 類例임에 注目된다. 坐像은 總高三〇二cm로서 光背와 臺座를 具備한 完形이다. 螺髮의 頭頂에는 낮은 肉髻가 있고 白毫는 없으며 三道가 돌렸고 兩耳가



길게 느리워졌다. 相好는 圓滿하며 兩眉 眼 鼻樑 口唇等 完全한데 各部를 彩色 하여 原狀을 그릇졌 음이 遺憾된 일이라 하겠다. 右肩偏袒의 法衣는 左腕에 걸쳐 兩膝을 덮었는데 그 衣文이 流麗하다. 光背는 二條線으로

서 頭・身光을 區別했고 頂面에 三軀의 化佛과 左・右 三軀씩의 配置로 都合九軀의 合掌한 化佛이 蓮華座 위에 彫刻되었었다. 頭光의 八葉蓮瓣外 間地에는 頭・身光 모두 雲紋이며 周緣에는 멋진 火焰을 陽刻하였다.

한편 光背의 뒷面에는 伏蓮을 彫刻한 위에 九〇cm x 五一cm의 額을 마련하고 그 위 帳幕을 結繩이 내린 듯한 寶蓋의 裝飾이 있는데, 光背背面에 佛像을 彫刻한 例는 慶州南山에서나 密陽舞鳳寺에서 볼 수 있는 바이지만 여기서의 이러한 樣式은 最初로서 或是나 寶塔의 意匠이 아닌 가?의 생각으로 注目되는 바이다. 臺座는 八角으로 上中下臺가 整然하다. 一枚의 地臺石上에 一石의 下臺가 놓였는데 各面마다 眼象이 있고 그 안에 四面에는 香爐를 二面에는 花瓣만을 他二面에는 二軀씩의 飛天像을 陽刻하였으며 八瓣의 伏蓮 그 八隅에는 山形紋의 귀퉁이 있고 上面에서 四分圓의 물딩과 角形 받침으로서 괴임들을 받고 있다. 괴임臺는 一石으로서 받고 上面에 四分圓과 角形 괴임이 刻出되어 中臺石을 받고 있다. 中臺는 全面에 雄麗한 雲紋을 彫刻하였고 各面마다 中央部에 짐승(獸)을 陽刻하였는데 一面만은 연봉이다. 獸形은 頭像만으로서 그 形態는 上下左右를 向하는 등 各異하다. 그 위 上臺는 下面에 낮은 괴임 三段이 있으며 單葉重瓣 仰蓮의 各瓣內는 花紋의 裝飾이 있다. 實測 値는(cm)坐像高 一八八 肩幅 六三 光背高 一九〇 廣幅 一四〇 臺座高 一一二이다. 屋內의 遺物임으로 保存이 良好하다. 坐像의 手法이나 光背의 火焰, 化佛의 配置 臺座各部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新羅下代로 推定된다. 이 坐像은 完形으로 各부가 잘 具備되고 年代도 올라가며 保存이 좋아서 昨年度에 文化財委員會에서 寶物로 指名되었음을 附言한다.

## 釜山市 甘川洞 支石墓

朴 商 憲

釜山地方 海岸에서 貝塚等 史前遺蹟이 여러곳 알려져 있으나 ① 支石墓는 別로 알려진 것이 없는 것 같다.